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 두 이론의 비교*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윤 경 자

캔자스주립대학교 가족과 인간봉사학부

교 수 Walter R. Schum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eui Univ.

Assistant Prof. : Gyung Ja Yoon

School of Family Studies and Human Services, Kansas State Univ.

Professor : Walter R. Schumm

〈 목 차 〉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해석 |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controversy between Lewis and Spanier's theory and Thomas and Kleber's theor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was tested empirically. The results show that while,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best predictor for marital stability, the impact of alternative attractions and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was more complicated than both theories predict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alternative attractions. Thomas and Kleber's theory was supported in most of groups. Contrary to Lewis and Spanier's theory, alternative attractions did not negatively affect marital stability of marriages of high quality. Contrary to both theories,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was not an important predictor of marital stability. In some cases, high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 even lowered marital stability. The validity

* 이 연구는 첫 번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Jeong, 1992)의 일부를 편집한 것임.

of both theories are discussed.

I. 서론 및 문제제기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해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요도는 어떠한가? 이 질문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명쾌하지 않다. 결혼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해체의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결혼의 안정성도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외견상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결혼도 이혼으로 해체되는 경우와 불행한 결혼이라도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와 결혼해체의 관계는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결혼해체라는 단순한 관계보다는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Lewis와 Spanier(1979)는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결혼해체는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alternative attractions)의 수준과 결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외적 압력(external pressures)을 반영한다고 제안하였다.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적 압력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를 강화시키며 대안적 매력은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라도 대안적 매력이 많을 때에는 결혼해체로 이어지기 쉬우며 결혼만족도가 낮더라도 결혼유지에 대한 외적 압력이 높으면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은 결혼만족도 외에도 결혼에 대한 대안과 결혼을 유지시키는 외적 압력간 상호작용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 낮은 수준의 대안적 매력과 높은 외적 압력을 가진 결혼이나 높은 대안적 매력과 낮은 외적 압력의 결혼보다는 높은 대안적 매력과 높은 외적 압력의 결혼과 낮은 대안적 매력과 낮은 외적 압력의 결혼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자의 두 경우에서 결혼안정성이 각각 높거나 낮다는 추론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Thomas와 Kleber(1981)은 이에 대해 증가하는 대안적 매력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를 강화시키며 외적 압력이 증가하면 그 관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현상을 반대로 추론하는 이

러한 논쟁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험적 연구로는 거의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Lewis와 Spanier, 그리고 Thomas와 Kleber의 모델을 비교하며 또한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의 영향을 고려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이론 모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전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하지 않아서 부분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사회교환이론은 1970년대 이후,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모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려 한다는 기본전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결혼관계의 본질을 밝히는데 가장 기여하였다. 이 관점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과거의 관점, 즉 안정된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일반적 시각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관점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Levinger(1965), Burr(1973), Nye, White, Frideres(1973)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이 분리되어 논의되거나 두 변수간 부분적 관계만을 다루었다. Lewis와 Spanier(1979)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를 보상과 비용이라는 사회교환적 개념의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A. Lewis와 Spanier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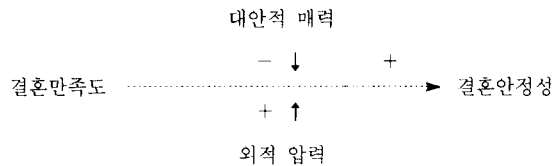
Lewis와 Spanier(1979)은 결혼만족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과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부압력이라는 상황변수(contingent variables)들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그림 1>. 즉, 결혼에 대안이 되는 매력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적 압력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림 1>은 결혼만족도에 따라 결혼안정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외적 압력은 결혼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개인이 별거나 이혼을 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강화된 이혼법,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의 평가, 결혼에 대한 헌신도, 결혼갈등과 긴장에 대한 인내력 등의 요인은 결혼안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Lewis and Spanier, 1979). 바꾸어 말하면,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의 정도와 내적, 외적 압력은 결혼안정성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B. Thomas와 Kleber 모델

Thomas와 Kleber(1981)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 Lewis와 Spanier(1979)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였다. Thomas와 Kleber은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외적 압력이 증가할 때에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에는 약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부부들이 가족, 종교적 신념, 친구 등으로부터 결혼을 유지하라는 높은 수준의 외적 압력을 받을 때에는 결혼관계를 해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따라서 Thomas와 Kleber은 결혼을 유지하라는 높은 외적 압력을 받을 때에는 결혼을 유지하는 압력에 관련된 비용 때문에 결혼의 행복여부에 상관없이 결혼안정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Thomas와 Kleber은 부부가 낮은 수준의 외



<그림 1>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Lewis와 Spanier 모델

다.

Lewis와 Spanier은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가 항상 이혼으로 연결되거나 높은 수준의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결혼이 항상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이 모델은 결혼만족도는 궁극적으로 결혼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안적 매력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따라서 낮은 결혼안정성으로 이끈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결혼이라도 강력한 대안적 매력이 존재한다면 별거나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는 약해질 것이다. 이혼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무, 친구나 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적 압력을 느낄 때에도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상관관계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적 압력이 낮을 때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은 불안정스러워 지겠지만 만족스런 결혼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해체와 관련된 비용이 낮을 때는 낮은 결혼만족도의 부부들은 결혼관계를 끝낼 것이지만 반면에 높은 결혼만족도의 부부들은 결혼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1981, p.780). 따라서 낮은 외적 압력을 경험하는 부부들에게는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안적 매력에 대해서는, Thomas와 Kleber은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으로부터 결혼관계 이외의 보상이 늘어나면 결혼의 질은 결혼안정성을 더 잘 예측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높은 결혼의 질을 경험

하는 부부는 낮은 결혼의 질을 경험하는 부부보다 높은 대안적 매력에 직면하여서도 결혼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낮은 결혼의 질을 경험하는 부부는 높은 대안적 매력이 존재하면 그들의 결혼을 해체하기가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homas와 Kleber은 결혼의 질은 높은 대안적 매력을 경험하는 부부들에게 결혼안정성을 예측하게 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Lewis와 Spanier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낮은 대안적 매력을 가진 부부들에게는 Thomas와 Kleber은 결혼의 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약 낮은 대안적 매력을 지닌 부부들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그들의 결혼에서 높은 이윤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부부들은 결혼을 유지할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결혼에 불만족하면서 낮은 대안적 매력을 가진 부부들도 결혼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부들은 결혼으로부터 낮은 이윤을 얻지만 만약 개인이 결혼유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개인이 가진 단 하나의 관계, 즉 결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Thomas와 Kleber은 결혼의 질은 낮은 대안적 매력을 가진 부부들보다 높은 대안적 매력을 가진 부부들의 결혼안정성을 더 잘 예측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 Lewis와 Spanier, 그리고 Thomas와 Kleber 이론모델들에 관한 관련연구 고찰

Lewis와 Spanier(1979)의 이론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두 모델의 논쟁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Lewis와 Spanier의 이론모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Green(1980)은 131명의 기혼자와 216명의 이혼자를 비교하였는데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대안적 매력은 자녀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결혼안정성에 대해 48%의 설명력을 가졌다. 결혼에 대한 대안적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이혼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유지케 하는 제도적 압력이나 친지로부터의 외적 압력은 기혼자나 이혼자 모두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녀에 대한 의무감만이 결혼안정성과 관련된 압력을 나타내는 변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그리고 결혼안정성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측정하였는데 이것은 결혼의 질,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의 수준에 따라 이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의 결혼안정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이 변수들간 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Miller(1982)는 과거에 부부였던 남편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매력과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매력이 감소할수록 결혼관계로부터의 만족감도 줄어들었으며 대안적 매력은 불안정한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데 관련된 가장 주요한 변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결혼에서 매력감소의 순이었다. 또한 대안적 매력의 증가는 이혼 후 '독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가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의 수준에 따라 동시에 고려되지 않았다.

Green과 Sporakowski(1983)는 166명의 이혼자와 131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이 Lewis와 Spanier의 주장처럼 결혼만족도와 안정성간 강도를 증대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여성들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간 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성들에게는 대안적 매력이 결혼안정성에 대해 12% 이하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높은 외적 압력은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간 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Thomas와 Kleber 이론모델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Udry(1983)는 결혼의 행복도와 결혼해체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다는 명제를 검증하였는데, 결혼에 대해 높은 대안적 매력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의 강도가 강해지고 낮은 대안적 매력의 조건에서는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Thomas와 Kleber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35세 이하의 기혼자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인적 인식에 바탕을 둔 대안에 근거하였을 때는 대안

적 매력이 약할 때 결혼의 행복도와 결혼해체간 역관계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Thomas와 Kleber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 공동의 인식에 바탕을 둔 대안에 근거하여 대안적 매력을 측정하였을 때는 행복도와 결혼해체간 역관계라는 명제를 지지하였다. 또한 대안적 매력이 낮을 때에는 Thomas와 Kleber이 예측한대로 결혼해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외적 압력의 변수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Thomas와 Kleber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Lewis와 Spanier, 그리고 Thomas와 Kleber의 논쟁점에 가장 근접한 연구로 Schumm과 Bugaighis(1985)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논쟁적 관점들이 서로 양립될 수 없다기 보다는 각각의 관점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다르게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Lewis와 Spanier의 모델은 불만족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결혼관계에서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더 타당할 것이며 결혼안정성이 결혼만족도보다 더 평가받는 보수적 문화권에서는 Thomas와 Kleber의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고 보았다. Schumm과 Bugaighis는 또한 결혼의 질과 대안적 매력, 그리고 결혼의 질과 외적 압력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며 이 상호작용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므로 Thomas와 Kleber 모델은 높은 결혼만족도와 낮은 안정성의 경우에 더 적은 사례들이 발견될 것이며 낮은 대안과 높은 장애 집단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간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Lewis와 Spanier의 모델은 낮은 결혼의 질과 높은 안정성의 경우에는 잘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높은 대안적 매력과 낮은 장애집단에서 결혼의 질과 안정성간 강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Schumm과 Bugaighis는 이전의 다른 연구보다는 이 논쟁을 직접적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로 검증되지 않았고 Thomas와 Kleber 모델에서 높은 대안적 매력과 높은 결혼의 질의 집단과, Lewis와 Spanier 모델에서 낮은 대안적 매력과 낮은 결혼의 질의 집단과 같은 논쟁의 주가 되는 집단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외적 압력의 부분에서도

같은 원리로 주요 논쟁집단들이 간과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전춘애와 박성연(1993)이 Jeong(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동일변수들을 이용하여 한국문화권에서 반복검증(replication)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을 포함하는 대안적 매력은 Jeong(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척도들을 이용하였고 외적압력은 Lewis와 Spanier(1979)의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에 친정으로부터의 압력과 이혼후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과 자신에게 쏟는 헌신과 신뢰로 인한 압박감(Jeong, 1992)의 문항을 포함하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결혼경력 10년 이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대안이 증가할수록 결혼안정성이 감소하였지만 외적 압력과 결혼안정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을 예측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또한, 가상적 대안과 외적 압력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외적 압력이 낮고 실제적 대안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와 안정성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가상적 대안과 외적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대안적 매력이 적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Lewis와 Spanier(1979)의 모델과 그리고 외부적 압력이 낮을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Thomas와 Kleber(1981)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p.92)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가상적 대안과 외적 압력이 모두 낮은 조건에서 나타난 결과를 각기 독립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외적 압력과 대안적 매력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강도에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효과를 동시에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을 뿐 아니라 논쟁이 되고 있는 이론모델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일관성있는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혼만

족도 수준에 따른 이들 이론 모델의 논쟁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의 상황효과(contingency effect)를 검증하는 것은 모델의 타당성 검증에 중요하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되었듯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간 논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미치는 논쟁적 관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혼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앞에서 제기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두 이론간 논쟁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집단은 결혼 외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그리고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두 이론의 주장에 따른 결혼안정성이 예측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집단 1>은 낮은 대안적 매력, 높은 외적

압력, 높은 결혼만족도 집단이며 두 모델 모두가 결혼안정성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집단 2>와 <집단 4>는 두 이론모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2.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Lewis와 Spanier, 그리고 Thomas와 Kleber의 주장에 따른 <표 1>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두 이론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은 정적 관계에 있다.

연구가설 2.1. 대안적 매력과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상호작용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외적 압력과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상호작용할 것이다.

연구가설 2.3.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상호작용할 것이다.

연구문제 3.1.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1>의 결혼안정성은 높게 나타날 것인

<표 1>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의 모형

집단	대안적 매력 ^a	외적 압력 ^a	결혼만족도 ^a	예측된 결혼안정성
1	낮음	높음	높음	높음-LS & TK
2	낮음	높음	낮음	낮음-LS, 높음-TK
3	높음	낮음	낮음	낮음-LS & TK
4	높음	낮음	높음	낮음-LS, 높음-TK
5	낮음	낮음	높음	낮거나 중간-LS, 높음-TK
6	낮음	낮음	낮음	낮음-LS, 중간이거나 높음-TK
7	높음	높음	높음	낮거나 중간-LS, 높음-TK
8	높음	높음	낮음	낮음-LS, 중간이거나 높음-TK

주: LS는 Lewis와 Spanier의 이론모델을 말함.

TK는 Thomas와 Kleber의 이론모델을 말함.

a: 각 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수준을 구분하였음.

가?

연구문제 3.2.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2>의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3.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3>의 결혼안정성은 낮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3.4.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4>의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5.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5>의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6.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6>의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7.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7>의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8.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에 따른 <집단 8>의 결혼안정성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 2) 대안적 매력: 결혼 외에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으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 매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 a. 실제적 대안: 현재의 결혼과 비교하여 결혼의 관계나 대안으로부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를 말한다.
 - b. 가상적 대안: 현재 결혼관계를 해체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관계나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보상의 정도를 말한다.
- 3) 외적 압력: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관계를 해체하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실제적 압력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비용의 정도를 말한다.
- 4) 결혼안정성: 부부가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향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 5) 결혼불안정성: 부부가 결혼을 해체시키고자 하

는 성향을 나타낸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국 중서부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혼여부를 나타내는 인명록에서 체계적 무작위 표본법(systematic random sample)을 이용하여 추출된 300명의 기혼여성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회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3주 후에 추가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혼자 및 미망인을 제외한 13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회신율은 55%였다. 설문조사는 1991년 봄에 시행되었다.

2. 측정도구

1)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nsas Marital Satisfaction(KMS) scale (Schumm, Paff-Bergen, Hatch, Copeland, Meens, and Bugaighis, 1986)을 이용하였다. KMS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 등을 측정하며 <부록 1 참고> 총체적 결혼만족도를 측정한다(김득성, 1989; 정현숙, 1997; Sabatelli, 1988). KMS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Likert-type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7(r, 재검사신뢰도) (Mitchell, Newell, and Schumm, 1983), .92 (Cronbach's alpha) (Grover, Paff-Bergen, and Russell, 1984), 남편과 부인에게서 Cronbach's alpha가 각각 .89와 .93 (Schumm, Scanlon, Crow, Green, and Buckler, 1983) 등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KMS는 결혼한 부인들과 별거나 이혼을 한 부인들을 비교했을 때 서로 구별이 되어서 (Schumm, Anderson, Benigas, McCutchen, Griffin, Morris, and Race, 1985) 타당성도 지닌 척도로 입증되었다.

2) 결혼안정성

이 변수는 Marital Status Inventory(MSI) (Weiss and Cerreto, 198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SI는 전체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혼해체를 할 가능성을 평가하며 이혼으로 이끄는 점진적 생각과 행동의 발달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결혼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6에서 .90으로 높게 나타났다(Armstrong, 1980; Crane and Mead, 1980). 결혼치료나 가족치료 중인 부인들은 결혼강화 프로그램에 있는 부인들보다 척도점수가 훨씬 높았다(Crane, Newfield, and Armstrong, 1984).

3) 대안적 매력

(1) 실제적 대안

실제적 대안은 Johnson(1978)의 척도를 변형한 것으로 Inventory of Alternative Attractions(Green and Sporkowski, 1983)를 이용하였고 6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type이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결혼 외 대안적 관계에 얼마나 자주 매력을 느끼는지, 그리고 독신이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얻게 될 혜택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강한 실제적 대안을 나타낸다.

(2) 가상적 대안

가상적 대안은 Marital Alternative Scale(Udry, 1981)을 사용하였는데 Likert-type의 11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결혼한 사람이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자신이 얻게 될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 4점 척도 형태로 되어 있다. 반분법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는 .7로 보고되었고(Udry, 1981) 점수가 높을수록 가상적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Udry는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사람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응답자의 18%가 2년 후에 별거나 이혼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 외적 압력

한 개인이 이혼을 고려할 때 겪게 되는 내외적 압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Inventory of External Pressures to Remain Married(IEP) (Green and Sporkowski,

1983)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서약, 자녀,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무감, 이혼에 따른 경제적 비용,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압력을 나타내며 5점 Likert-type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79로 보고되었으며(Green and Sporkowski, 1983), 기혼자와 이혼자를 비교하였을 때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타당성(Concurrent criterion validity)이 입증되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X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계수, 일원분산분석, ANOVA, LSD 비교법, 그리고 신뢰도 측정 등을 이용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나이는 44.51세(S.D.=13.08년)이며 21세에서 79세 사이에 걸쳐 있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21.12년(S.D.=13.26년)으로 최소 2년에서 최대 59년의 결혼경력을 나타내었다.

자녀수는 0명에서 7명(평균=2.21명)까지였으며 조사대상자의 22%(N=29)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29%(N=38)가 대학교육의 일부를, 16%(N=21)가 학사 학위를, 7%(N=9)가 대학원 교육의 일부를, 그리고 23%(N=30)가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65% 이상이 \$30,000 이상의 연간 수입이 있었으며 대다수가 취업한 상태였다. 전일제와 시간제 일을 하는 대상자가 전체 61%를 차지하였고 19%의 여성만이 전업주부였다. 나머지는 학생이거나 은퇴, 두 개의 직업, 실직등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소속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69%)가 신교로 대답하였고 카톨릭(21.7%), 무종교(7.8%), 기타종교(7.0%)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43.5%가 한달에 2-3번 이상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2>에는 주요 측정도구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

다.

〈표 2〉 측정도구의 일반적 특성

척도	평균	편차	범위
KMS	17.18	3.27	6-21
MSI	1.52	1.00	0-11
MAS	26.41	5.29	13-39
IAA	9.61	3.57	6-19
IEP	23.11	6.89	9-45

1.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에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결혼만족도와 결혼불안정성간에는 $r = -.4953$ ($p < .0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이것은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에는 결혼안정성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2.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간 상호작용 효과

대안적 매력을 MAS와 IAA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결혼안정성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제공하였다. 두 척도 모두 동일개념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연구의 자료는 각 척도에 의해 측정된 개념의 구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구성에 따라 대안적 매력을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으로 명명하여 따로 평가하였다.

〈표 3〉에서 〈표 7〉까지는 결혼만족도, 대안적 매력, 그리고 외적 압력간 상호작용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실제적 대안이 각각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 변수들간 상호작용효과도 결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상적 대안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결혼만족도와 상호작용효과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4〉. 결혼안정성은 외적 압력의 차이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결혼만족도와 외적 압력간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또한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간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7〉.

〈표 3〉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결혼만족도와 실제적 대안의 효과

	df	F
주효과	2	23.356**
결혼만족도	1	26.505**
실제적 대안	1	5.887*
상호작용		
결혼만족도 × 실제적 대안	1	4.531*

* $p < .05$ ** $p < .0005$

〈표 4〉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결혼만족도와 가상적 대안의 효과

	df	F
주효과	2	16.771**
결혼만족도	1	32.019**
가상적 대안	1	1.063
상호작용		
결혼만족도 × 가상적 대안	1	1.656

** $p < .0005$

〈표 5〉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결혼만족도와 외적 압력의 효과

	df	F
주효과	2	8.331*
결혼만족도	1	15.436**
외적 압력	1	.244
상호작용		
결혼만족도 × 외적 압력	1	.443

** $p < .0005$

3. 결혼만족도,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표 1〉의 연구모형에 구성된 집단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각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결

〈표 6〉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결혼만족도, 실제적 대안, 외적 압력의 효과

	df	F
주효과	3	7.032**
결혼만족도	1	11.200**
실제적 대안	1	3.960*
외적 압력	1	.109
상호작용	3	.569
결혼만족도 × 실제적 대안	1	.053
결혼만족도 × 외적 압력	1	.802
실제적 대안 × 외적 압력	1	1.201

* $p < .05$ ** $p < .001$ *** $p < .0005$

〈표 7〉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결혼만족도, 가상적 대안, 외적 압력의 효과

	df	F
주효과	3	5.385**
결혼만족도	1	13.370***
가상적 대안	1	.720
외적 압력	1	.752
상호작용	3	1.393
결혼만족도 × 가상적 대안	1	.018
결혼만족도 × 외적 압력	1	.358
가상적 대안 × 외적 압력	1	3.617
결혼만족도 × 가상적대안 × 외적 압력	1	3.549

** $p < .005$ *** $p < .0005$

혼불안정성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결혼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Lewis and Spanier, 1979; Green, 1980; Green and Sporakowski, 1983). 실제적 대안은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가상적 대안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실제적 대안의 경우에 상관관계와 유의도가 훨씬 높았다. 이것은 실제적이든지 가상적이든지 결혼 외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결혼을 불안정하게 함을 의미하며, 결혼안정성에는 가상적인 대안보다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대안적 매력이 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대안들은 결혼만족도에도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계를 위협하는 결혼 외의 매력들은 결혼만족에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Green, 1980; Johnson, 1978; Miller, 1982).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각 변수들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독립된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므로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사이의 동시적 관계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관계는 〈표 9〉과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은 실제적 대안,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연구모형에 나타난 각 집단들의 결혼안정성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2〉). 낮은 실제적 대안, 낮은 외적 압력, 높은 결혼만족도로 구성된 〈집단 5〉의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즉 결혼불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68)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5, 1, 7〉 사이에는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1〉의 경우에는 두 이론에서 결혼안정성이 높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예측한대로 결과가 나와 있다. 〈집단 3〉과 〈집단 8〉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의 결혼안정성은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혼에 불만족하면서 대안적 매력이 높을 때에는 결혼을 유지시키려는 외적 압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혼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가상적 대안이 높을 때에는 〈표 10〉의 〈집단 4, 7, 8〉에서와 같이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집단 2〉의 결혼안정성도 낮았는데 이 집단은 〈집단 4〉와 함께 두 이론모형을 비교할 때 가장 논쟁이 되는 쟁점을 보여 준다. Thomas와 Kleber은 외적 압력이 높을 때에는 이러한 압력으로 인한 압박감과 저항이 비용으로 작용하므로 결혼이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결혼안정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집단에서는 결혼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안적 매력의 수준이 낮으므로 외적 압력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과 〈표 10〉에서는 이 집단의 결혼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Thomas와 Kleber의 모델이 지지되지 않았다.

〈집단 4〉는 높은 대안적 매력에 직면하여서도 결

〈표 8〉 결혼만족도,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 외적 압력, 결혼불안정성간 상관관계

	결혼만족도	실제적 대안	가상적 대안	외적 압력	결혼불안정성
결혼만족도					
실제적 대안	-.4820***				
가상적 대안	-.2921***	.2077*			
외적 압력	-.0456	.1442	-.2548**		
결혼불안정성	-.4953****	.3897***	.1664	.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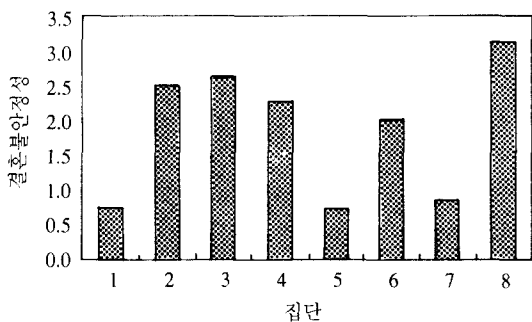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5

〈표 9〉 두 이론모델의 비교를 위한 다중범위측정^a

결혼불안정성 평균	집단 5	1	7	6	4	2	3	8
.68	5							
.71	1							
.83	7							
2.00	6	*						
2.25	4	*						
2.50	2	*	*					
2.62	3	*	*					
3.11	8	*	*	*				

* 표시는 각 집단이 .05 수준에서 서로 유의하게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냄.

a: LSD비교법을 이용하였으며 결혼만족도, 실제적 대안, 외적 압력의 변수들이 사용됨.



〈그림 2〉 결혼만족도, 가상적 대안, 외적압력에 따른 집단간 결혼불안정성의 비교

혼에 만족한다면 그 결혼을 유지할 것이므로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안정을 예측할 것이라는 Thomas와 Kleber의 이론모델의 타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

다. 〈표 9〉에서 〈집단 4〉는 〈집단 5〉와는 결혼안정성에 차이가 나는 중간수준이었고 〈표 10〉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Lewis와 Spanier은 결혼 외 대안적 매력의 높다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라도 결혼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대안적 매력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Thomas와 Kleber의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Goldstein(1979)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Goldstein은 결혼만족도의 수준보다는 대안적 매력이 결혼안정성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매력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만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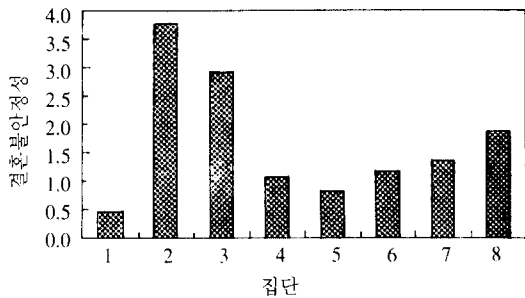
〈표 10〉에서는 집단간 결혼안정성을 비교하는 데 가상적 대안, 외적 압력,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사용되었다(그림 3). 〈집단 1〉의 부인들의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집단 5〉의 순이었다. 〈집단 2〉의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았으며 〈집단 3〉의 안정성도 다른 집단보다 낮았으며 〈집단 1, 4, 5, 6, 7, 8〉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2〉(낮은 가상적 대안 - 높은 외적 압력 - 낮은 결혼만족도)와 〈집단 8〉(높은 가상적 대안 - 높은 외적 압력 - 낮은 결혼만족도)을 비교하면, 〈집단 2〉에서는 〈집단 8〉보다 낮은 가상적 대안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결혼안정성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표 9〉의 같은 집단들을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은 결혼외의 대안적 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지만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표 10〉 다중비교법을 이용한 두 이론모델의 비교^a

결혼불안정성 평균	집단	5	1	7	6	4	2	3	8
.45	1								
.79	5								
1.05	4								
1.14	6								
1.33	7								
1.85	8								
2.90	3	*	*	*					
3.75	2	*	*	*	*	*			

* 표시는 각 집단이 .05 수준에서 서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냄.

a: LSD를 이용하였으며 결혼만족도, 가상적 대안, 외적 압력이 사용됨.



〈그림 3〉 결혼만족도, 가상적 대안, 외적압력에 따른 집단간 결혼불안정성의 비교

다.

실제적 대안을 측정하는 척도는 응답자가 개인적 자유, 돈을 사용하는 것, 타인과의 성관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실제로 경험한 매력의 빈도를 측정한다. 반면에 가상적 대안은 응답자의 환상을 측정하는데 배우자가 자신을 떠날 경우에 경험할 수 있는 일련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대안적 매력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응답은 실제의 대안적 매력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의 해체는 실제로 결혼외의 대안적 매력이 존

재하거나 혹은 실제 대안적 매력은 없다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환멸이 심각하다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AS와 IAA는 대안적 매력의 각기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안적 매력의 본질에 따라 외적 압력은 다르게 기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또한 실제적 대안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따라서 결혼의 안정성은 이 변인들이 따로 다루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고려되어야 결혼안정성의 역동적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단독 변수의 영향을 보았을 때는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에는 외적 압력은 대안적 매력이 높을 때조차도 결혼안정성을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외적 압력이 결혼안정성을 저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4(높은 가상적 대안 - 낮은 외적 압력 - 높은 결혼만족도)에서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결혼만족도는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의 강도에 관계없이 결혼안정성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가 낮을 때에는 결혼안정성은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 결혼만족도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집단 1〉의 경우처럼 두 이론모델의 관점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Thomas와 Kleber의 이론모델이 지지됨을 보여 준다 〈집단 4, 5, 7〉.

A. 낮은 결혼만족도, 대안적 매력, 외적 압력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을 때에는, 외적 압력은 대안적 매력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였다. 먼저 실제적 대안이 높을 때는 높은 외적 압력은 〈집단 8〉에서와 같이 결혼안정성을 높이지 않았으며 〈집단 3〉의 외적 압력이 낮을 때보다도 더 낮은 결혼안정성을 보여주었다(표 9). 이 경우 높은 외적 압력은 억제기능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가상적 대안이 높을 때에는 높은 외적 압력은 실제적 대안이 높을 경우와는 반대로 〈집단 8〉에서처럼 결혼안정성을 강화시켰다(표 10). 그러나 외적 압

력이 낮은 <집단 3>의 결혼안정성은 실제적 대안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높은 외적 압력은 실제적이지 않은 가상적 대안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표 7>에서는 가상적 대안과 외적 압력간 상호작용 효과가 거의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61$)).

B.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이 낮은 경우

실제적 대안이 낮을 때에도 높은 외적 압력은 실제적 대안이 높은 경우처럼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집단 2>와 <집단 6>의 부인들을 비교하면 더 명백해진다. 높은 외적 압력(집단 2)은 외적 압력이 낮을 때(집단 6)보다도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현상은 가상적 대안으로 대안적 매력에 측정하였을 때 더욱 명백해진다. <집단 2와 6>을 비교하면 결혼불안정성 점수는 각각 3.75와 1.14로서 <집단 2>의 부인들이 훨씬 낮은 결혼안정성을 보여준다.

부인들의 결혼이 불행하면서 결혼 외의 대안적 매력에 마음이 끌리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대안이 많은 경우에서처럼 불행하였고, 높은 외적 압력은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외적 압력은 자신의 결혼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라는 외적 압력을 느낀다면, 그러한 스트레스는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개인은 그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적 대안에서 설명된 것처럼 낮은 가상적 대안이 암시하는 자신감의 결여와 불행한 결혼을 계속 유지하라는 높은 압력으로 인한 절망감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적 압력이 불행한 결혼에서 가상적 대안이 높은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대안적 매력의 강도에 상관없이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두 이론모형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점이다.

<집단 6>(높은 실제적 혹은 가상적 대안- 낮은 외적 압력- 낮은 결혼만족도)에서 서로 다른 대안적 매력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부인들이 다른 배우자를 찾을 자신감이나 현재 배우자가 없을 때의 자신의

안녕감에 대한 인식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었다. 가상적 대안이 낮을 때 불만족스러운 부인들의 결혼안정성이 실제 대안이 낮으면서 결혼에 불만족한 부인들보다 높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배우자를 찾거나 관계를 가질 수 있을리라는 상상은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집단 3>). 이런 경우에는 외적 압력이 낮을 때 부인들은 결혼관계를 유지하였다. 이같은 경우에 결혼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외적 압력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서로 다른 대안적 매력에 관한 이러한 자료는 결혼안정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료는 결혼 외 대안적 매력이 높을 때에도 자신의 결혼에 만족하는 개인들은 높은 결혼안정성을 나타내었고 외적 압력은 두 이론모형이 예측하는 어느 쪽으로도 기능하지 않았다. 외적 압력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결혼안정성을 강화시키지 않았다. 또한 외적 압력은 불만족한 부인들의 결혼 외 대안적 매력을 상쇄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증가되는 외적 압력보다는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개인적 결정에 의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낮을 때는 대안적 매력이 낮을 때조차도 외적 압력이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소 놀라운 결과였다. 결혼을 안정시키는 외적 압력의 기능의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의 달라지는 규범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응답자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이다. 그러나 Schumm과 Bugaighis(1985)가 예견하였듯이 조사대상자들이 보수적 문화권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의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혼만족과 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복잡한 연구결과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같은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Lewis와 Spanier, 그리고 Thomas와 Kleber의 두 이론모델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료는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안적 매력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높은 대안적 매력에 직면하였을 때조차 결혼안정성을 저해시키지 않았다.

외적 압력은 결혼안정성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주었다. 결혼에 불만족하면서 대안적 매력이 높은 때는 높은 외적 압력이라도 대안적 매력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았다. 높은 대안적 매력, 높은 외적 압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여성들은 같은 조건의 낮은 외적 압력을 나타내는 여성들과 같은 수준의 낮은 결혼불안정을 보였다. 높은 외적 압력은 대안이 거의 없이 지내는 불만족스러운 여성들의 결혼안정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렸으며 가장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게 하였다. 높은 외적 압력은 행복한 부인들에게만 결혼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이 결과는 매우 주목할만하며 후속 연구에서 계속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만족한 오늘날의 기혼여성들은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결혼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아정체감을 찾으려하고 여성들의 권익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장되는 경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외적 압력이 기혼자와 이혼자 모두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Green(198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Green과 Sporkowski(1983)의 연구와 우리나라의 연구(전춘애, 박성연, 1996)와는 달리 여성들에게도 대안적 매력과 외적 압력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 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LS의 모델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TK의 모델은 결혼만족도보다 결혼안정성이 더 평가받는 보수적 사회에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예견

(Schumm and Bugaighis, 1985)과도 다른 부분이다.

대안적 매력의 성격에 따른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의 각기 다른 영향력도 매우 흥미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나타낸다. 어떤 한 변수가 결혼안정성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TK가 예측하였듯이 불만족한 결혼관계라 하더라도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만족스러운 결혼이 낮은 결혼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는 외적 압력이 낮고 높은 대안적 매력의 상황에서도 결혼안정성이 높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와 가족 전문가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해체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안정성에 관한 이론적 발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단적 연구모델을 통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적 대안과 가상적 대안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각기 다른 역할의 후후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연구모델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권에서 이 이론모델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혼 해체의 역동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가족 전문가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에게도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Burr, W. R.(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John Wiley & Sons. New York, London, Sydney, and Toronto.
- 2) Crane, D. R., and Mead, E.(1980). The Marital Status Inventory: Some preliminary data on an instrument to measure marital dissolution potential.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3), 31-35.
- 3) Crane, D. R., Newfield, N. and Armstrong, D. (1984). Predicting divorce at marital therapy intake: Wives' distress and Marital Status Inventory.

-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3), 305-312.
- 4) Goldstein, J. J.(1979). Marital stability: An investigation of the relevance of social exchange theor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 5) Green, R. G.(1980). A test of a theory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International Abstracts, 5259-A.
 - 6) Green, R. G. and Sporkowski, M. J.(1983). The dynamics of divorce: Marital quality, alternative attractions and external pressures. Journal of Divorce. 7(2), 77-88.
 - 7) Grover, K., Paff-Bergen, L. A., Russell, C. S., and Schumm, W. R.(1984). The Kansas Satisfaction Scale: A further brief report. Psychological Reports, 54, 629-630.
 - 8) Jeong, G. J.(윤경자) (1992).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 Further Conceptual Reformulation. Ph.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9) Johnson, F. C.(1978). A test of social exchange model of marital sta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10) Miller, R. L.(1982). Marital dissolution: Path to breakup.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11) Levinger, G.(1965).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grated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1), 19-28.
 - 12) Lewis, R. and Spanier, G.(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and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Free Press.
 - 13) Michell, S. E., Newell, G. K. and Schumm, W. R.(1983).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545-546.
 - 14) Nye, F. I., White, L., and Frideres, J. S.(1973). A preliminary theory of marital stability: Two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 102-122.
 - 15) Schumm, W. R., Anderson, S., Benigas, J., McCutchen, M., Griffin, C., and Race, G.(1985).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6, 719-722.
 - 16) Schumm, W. R., Paff-G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and Bugaighis, M. A.(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17) Schumm, W. R., Scanlon, E., Crow, C., Green, D., and Buckler, D.(1983).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a sample of 79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53, 583-583.
 - 18) Thomas, D. L. and Kleber, J. E.(1981). Comment on marital quality: A review o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780-782.
 - 19) Udry, J. R.(1981). Marit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889-897.
 - 20) Weiss, R. L. and Cerreto, M. C.(1980). The Marital Status Inventory: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issolution potential.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 80-85.
 - 21)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85-94.
 - 22)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23)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

학회지, 35(1), 191-204.

부록 1**: KMS 척도

1. 귀하는 귀하의 결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귀하의 남편/부인에 대해 배우자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척도들의 사본은 연구자에게 요청하기 바람.